

## “‘좋알람’이 알려주는 사랑? 난 아날로그 연애가 좋아”

(드라마 속 좋아하는 사람을 알려주는 앱)

넷플릭스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열연

김소현

오랫동안 고수해온 긴 생머리를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단발로 잘랐다. ‘잘 자람 아역’이라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도 이제는 휘둘리지 않는다. 스스로 설계한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성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 연기자 김소현(20)이 그렇게 한결 홀가분해진 미소를 짓는다. 그는 “앞으로 10년, 20년 보여드릴 게 많으니 조금해하지 않고 즐기겠다”며 연기자로서는 물론 20대 청춘의 미래를 기대했다.



동명 원작 웹툰 팬...시즌2도 기대 드라마 찍다보니 연애세포 깨어나 일상에서 작은 변화...해방감 느껴 긴 생머리도 싹둑, 보여드릴게 많다



**?** 김소현 ▲1999년 6월4일생 ▲한양대 연극영화과 휴학 중 ▲2006년 KBS 2TV '십본간, 당신의 사소한'으로 데뷔 ▲드라마 '보고 싶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냄새를 보는 소녀' 등 ▲2012년 MBC '해를 품은 달' 연기대상 청소년 연기상 ▲2013년 SBS '수상한 가정부' 연기대상 뉴스타상 ▲2015년 KBS 2TV '후아유-학교 2015' 연기대상 신인상 ▲2017년 '군주-가면의 주인' 연기대상 인기상 ▲2018년 MBC 오디션프로그램 '언더나인틴' 진행·방송연예대상 뮤직·토크부문 우수상



아역에서 어엿한 성인 연기자로 발돋움한 김소현은 “아직 보여줄 게 많으니 조금해 하지 않겠다”며 각오를 새로이 밝혔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좋아하면 울리는’ 찍고 연애하고파”

김소현은 스무 살이 되고 처음 출연한 2018년 KBS 2TV '라디오 로맨스'를 시작으로 지난달 22일 공개한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의 '좋아하면 울리는'을 거쳐 미래를 향한 길에 속력을 내고 있다. 이제는 아역이 아니라 어엿한 성인연기자로서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해가 거듭할수록 강해지는 책임감을 가슴에 품고 있다.

“아역 때부터 활동해와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넌 알아서 잘 하니까’라는 시선을 보냈다. 저도 힘들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제는 그런 부담감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좋아하면 울리는’을 찍으면서 더 많이 배웠다.”

동명의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는 좋아하는 사람이 반경 10m 안에 접근하면 알람이 울리는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는 설정 아래 고교생들의 풋풋하면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학생과 두 남학생의 설레는 삼각관계가 또래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극중 조조 역을 맡은 김소현은 원작 팬들의 가상 캐스팅 1순위로 뽑히기도 했다.

그는 “평소 즐겨본 웹툰의 주인공을 맡아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앞섰다”며 “팬들의 감상을 깨진 않을까 고민했다”고 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면 분명 후회했을 것”이라며 “아쉬운 마음이 커 시즌2로도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소현은 촬영 내내 “교복 입고 연애하면 얼마나 예쁠까”라고 상상했다. 상대역인 송강과 함께 손잡지 끼는 애드립을 만들어 내는 등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학창시절의 대리만족감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캐릭터에 더욱 몰입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연기이지만 최대한 진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상대 캐릭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감정이입을 심하게 해 이별 장면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 혼났다”고 돌아봤다.

드라마로 ‘연애 세포’도 깨어났다. “연애 경험이 없다”는 그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



최근 단발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팬미팅에 나선 김소현의 모습. 사진출처 | 김소현 인스타그램

가면(연애)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웃음을 터트린다. 이어 “설레서 긴장하고, 고민도 하며, 어떻게 고백할지 머리 푼공 싸매는 아날로그 연애를 꿈꾼다”고 했다.

●“껍질 깨고 제 진짜 모습 보여주고파”

김소현은 최근 처음으로 불링과 배드민턴을 쳐봤다. 종목은 둘째 치고 활동적으로 움직여본 경험이 없다. 그는 “땀을 쓰면서 소비한 에너지가 그 이상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들더라”며 “땀을 뺀뺀 흘리니 가슴도 뻥 뚫리는 것 같았다”고 웃었다. 집 밖 자유로운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그로서는 커다란 변화이다.

3개월 전부터 영화 보는 장소를 자신의 방에서 극장으로 옮겼고, 친한 선배와 서울 근교의 카페와 맛집을 찾아다니며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장릉 먼허’에서도 벗어 나고 싶다.

일상에서 시작하는 작은 변화를 통해 심리적인 해방감도 얻고 있다. 이전까지 하고 싶은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성격이었다. “마음의 병”이 생겨 가슴이 답답했다. 더 이상 감춰지지 말고 ‘껍질’을 깨고 나와야겠다고 결심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뒤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의 맛도 즐길 줄 알게 됐다. “뽀뽀하게 마실 수 있는 나이로 가끔 즐겨요(웃음). 어릴 때는 어른들의 말에 전혀 공감을 못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가끔 피곤할 때 한 캔 마시면 피로가 풀리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하하!”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RIVADI COMFORT SHOES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



모델명: 리바디-77  
색상: 다크브라운 (Dark Brown)

## 2019 정통 유럽브랜드 "리바디" 정식런칭

소프트한 외피, 완벽한 통풍, 강력한 미끄럼방지, 유럽풍 디자인

정통 유럽 브랜드 리바디가 새로 컴퍼트화를 출시하였다. 부드러운 외피와 완벽한 통풍성에 강력한 미끄럼방지 기능을 탑재한 컴퍼트화다. 기존의 신사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내구성을 겸비하였고 디자인 또한 유럽풍으로 세련되고 수려하다. 극단적으로 부드러운 외피는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신은 듯 안 신은 듯 발에 감기는 착화감이 압권이다. 새로운 신발은 발에 잘 맞지 않아 일마간 신어야 비로소 발에 맞춰지지만 리바디 컴퍼트화는 처음 신는 사람

도 오랜 시간 신는 신발 처럼 발에 잘 맞는다. 유럽풍 디자인은 어떤 복장에도 잘 어울리며 다크 브라운의 외피 색상은 중후하고 우아한 패션감을 만들어 준다.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편안하게 신을 수

불편한 신발 때문에 고민이라면 발이 편한 리바디가 최선입니다!

있는 것이 리바디의 장점이다. 리바디 컴퍼트화는 내구성이 뛰어나서 기존의 제품들과는 완벽하게 차별된다. 밑창과 외피로 이어지는 부분은 꼼꼼한 손바느질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파손이나 훼손의 염려가 없어 장기간 신을 수 있다. 또한 밑창은 잘 닳아지지 않는 특수 러버창을 채택하여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미끄럼없는 안전한 보행을 만들어 준다. 강력한 밑창은 과격한 움직임이나 거친 장소에서 보행을 할 경우에도 발을 보호해 주고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리바디 컴퍼트화는 발의 모양이 좋지 않아 기성화를 신기 힘든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부드러운 외피는 발의 모양대로 감싸주기 때문에 어퍼

한 형태의 족형에도 마치 맞춤화 처럼 잘 맞아 발이 불편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발이 편한 리바디 컴퍼트화는 장시간 보행을 하여도 발이 피곤하지 않고 발이 편해 일상화에서 작업화 및 여행, 야외활동

기존가: 138,000원  
파격가: 49,800원 (택배비 무료배송)  
사이즈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mm

시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2019 런칭기념으로 가격할인 이벤트가 진행중으로 놀라운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발관리가 중요한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도 2019 리바디 컴퍼트화를 강력 추천드린다. 이벤트는 선착순 100분 한정으로 파격가 및 무료배송으로 진행 되고있다.

제품구입문의: 1566-1788  
입금계좌; 우리은행 / 1005-301-396749 (주)진수테크  
인터넷주문: www.j1234.co.kr